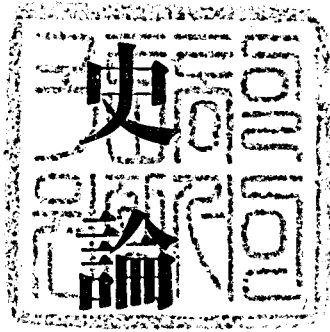


丹齊申采浩先生遺稿

# 朝鮮



(第一輯)

國土統一院 複寫

目

次

發刊辭	1
第一章 史의 定義와 朝鮮史의 範圍	3
第二章 史의 三大元素와 朝鮮舊史의 欠點	10
第三章 舊史의 種類와 그 得失	16
第四章 史料의 蒐集과 選擇	30
第五章 史의 改造에 對한 意見	50



發 刊 辭

이미 發刊 配布한 바 있는 《丹齊 申采浩》에 이어 金번 다시 丹齊先生 自身の 遺稿인 “朝鮮史論” 第一輯을 複写 配布하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

民族的 歷史意識의 欠如를 痛駁하고 植民地 史觀에 挑戰하는 한편 歷史家로서의 責任을 直接 行動으로 옮겨 異域에서 獄死할 때까지 獨立運動을 展開한 丹齊先生의 奇열한 主体意識은 正確한 民族史를 되찾으려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리라 믿는다 .

民族史的 正統性에 立脚한 祖國統一을 成就하여야 할 時代的 使命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隱蔽되고 歪曲된 部分의

歷史를 是正補完하여 잘못된 歷史的 觀點을 바로 잡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이런 點에서 볼때 本 資料는 하나의 귀중한 指針書가 될 것이다 .  
當院에서는 앞으로 關聯文獻을 蒐集하는데 尽力함과 아울러 이를 계속 研究檢討함으로써 우리民族의 참 모습을 찾는 데 熱과 誠을 다하여 寄与하고자 한다 .

一九七六年 十一月 一日

国土統一院長官 兪 尙 根

## 第一章 史의 定義와 朝鮮史의 範圍

歷史란 무엇이뇨? 人類社會의 『我와非我』의 鬪爭이 時間으로 부러 發表하며  
 空間으로 부러 擴大하는 心的活動의 狀態의 記錄이니 世界라 하면 世界人類의 그  
 리되어온 狀態의 記錄이며 朝鮮史라면 朝鮮民族의 그리되어온 狀態의 記錄이다  
 무엇을 『我』라 하며 무엇을 『非我』라 하는뇨? 靑이 靑것없이 알이 말하자면 무  
 릉 主觀的位置에 立者를 我라하고 그外에는 非我라하나니 일을테면 朝鮮人은朝  
 鮮을 我라하고 美英支蘇……等을 非我라하지마는 美英支蘇……等은 각기제나라를  
 我라하고 朝鮮은 非我라할것이며 無產階級은 無產階級을 我라하고 地主나資本主  
 等을 非我라하지마는 地主나 資本主等은 각기제불이를 我라하고 無產階級을 非我  
 라하며 이뿐않이라 學問에나 技術에나 職業에나 意見에나 그밖에 무엇이든지반

뜻이 本位인 我가 있으면 말아서 我와 對峙한 非我が 있는 것이다 我의 中에 我와 非我が 있으면 非我中에도 또 我와 非我が 있어 그리하여 我에 對한非 我的 接觸이 煩劇할수록 非我에 對한 我的 奮闘가 더욱 猛烈하여 人類社會의 活動이 休息될사이가 없으며 歷史의 前途가 完結될 날이 없나나 그럼으로 歷史는 我와 非我的 鬥爭의 記錄이다。

我나 我와 相對되는 非我的我도 歷史的의 我가 되려면 반듯이 兩個의 屬性을 要한다。

一、相續性이니 時間에 있어서 生命의 不絶함을 謂함이요

二、普遍性이니 空間에 있어서 影響의 波及됨을 謂함이다。

그럼으로 人類말고 달은 生物의 我와 非我的 鬥爭도 없지 않으나 그러나 我的 意識이 棼우 微弱—或絶無—하여 相續的普遍性이 못됨으로 마침내 歷史의 造作을 못하고 人類에게만 讓하는바다 社會를 떠나서 個人的의 我와 非我的 鬥爭도 없지 않으나 그러나 我的 範圍가 棼우 狹小하여 充分한 相續的普

通的이 못됨으로 人類라 할지라도 社會的行動이라야 歷史가 된다 同一한 事件으로 兩性—의 槓 普遍性—의 強弱을 보아 歷史의 材料될 단한 分量의 大小를 定할 것이다. 일을 해면 金錫文이 三百餘年前에 地圓說을 唱道한 朝鮮의 學者이지마는 이를 『후루노』의 地圓說과 같은 同様の 歷史的價値를 취하지 못할 것은 彼는 그學說로 因하여 歐洲各國의 探檢熱이 狂騰한다 『아메리카』의 新大陸을 發見한 다 하였지마는 此는 그런 結果를 가지지 못함이다. 또 鄭汝立은 四百餘年前에 君臣綱常說을 打破하려한 東洋의 偉人이지마는 이를 民約論을 著作한 『루소』와同等되는 歷史的人物이라 할수 없음은 當時에 多少間 鄭說의 影響을 입은 劔契나 兩班殺戮稷等の 電光一閃의 舉動이 없지 않았으나 마침내 『루소』以後의 波濤壯濶한 푸란쓰革命에 비길수 없는 까닭이다.

非我를 征服하여 我를 表彰하면 鬪爭의 勝利者가 되어 未來歷史의 生命을 이으며 我를 消滅하여 非我에 貢獻하는 者는 鬪爭의 敗亡者가 되어 過去歷史의 跡만 끼치나니 이는 古今 歷史에 마꾸지 못할 原則이다 勝利者가 되려하고 失



敗者가 되지 않으려 함은 人類의 通性이어늘 豫期와 違反되어 勝利者가 못 되고 失敗者가 될은 무삼 까닭이뇨? 무릇 先天的 實質부터 말하면 내가 생긴 뒤 에 非我が 생긴 것이지마는 後天的 形式부터 말하면 非我が 있는 뒤에 내가 있 나니 말하자면 朝鮮民族 | 我 | 가出現한 뒤에 朝鮮民族과 相對되는 苗族 支那族 等 | 非我 | 가 있었으리니 이는 先天的에 屬한 者이다 그러나 만일 苗族 支那族等 | 非我 | 가 없었으면 朝鮮이란 國名을 세운다 三京을 만든다 五軍을 둔다 하는等 我的 作用이 생기지 못하였으리니 이는 後天的에 屬한 者이다。

精神의 確立으로 先天的의 것을 護衛하며 環境의 順應으로 後天的의 것을 維持하되 兩者中 一이 不足하면 敗亡의 林에 歸하는故로 猶太의 宗教나 突厥의 武力으로도 沉淪의 禍를 免치 못함은 後者가 不足한 까닭이며 南美의 共和와 埃及末世의 興學으로도 衰頹의 患을 救치 못함은 前者가 不足한 까닭이 었다。

이제 朝鮮史를 云云하며 叙述하라고하는 境遇에는 먼저 朝鮮民族을 我的 單

位로 잡고,

(가) 我的 生長發達의 狀態를 叙述의 第一要件으로 할것이다。 그리고

(一) 最初文明의 起源이 어디서 된것

(二) 歷代疆域의 伸縮이 어떠한것

(三) 各時代思想의 變遷이 어떻게 되어온것

(四) 民族의意識이 어느때에 가장 旺盛하고 어느때에 가장 衰頹된것

(五) 女眞 鮮卑 蒙古 匈奴等이 본대 我的 同族으로 어느 때에 分離되며 分

離된뒤에 影響이 어떠한것

(六) 我的 現在의 地位와 興復問題를 어떻게 할것인가

等을 考究할것이다

(나) 我的 相對者인 四隣各族의 關係를叙述의 第二要件으로 할것이다

(一) 我에서 分離한 匈奴 鮮卑 女眞 蒙古며 我的 文化의 襁褓에서 자라난

日本이 我를 侵略한 事實이며

(二) 印度는 間接으로 支那는 直接으로 我가 그 文化를 輸入하였는데 이  
 하야 그 輸入의 分量을 말아 民族의 活氣가 여위어 疆土의 範圍가 줄  
 어졌나

(三) 歐美의 文化와 思想이 世界史의 中心이 되나 我朝鮮은 그 文化와 思想  
 으로 말미암아 消滅되고 말것인가? 또는 그를 咀嚼하며 消化하여 新  
 文化를 建設할것인가? 等を 論述하야

右의 (가) (나) 兩者로 朝鮮史의 基礎를 삼아야 될것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다) 言語 文字等 我的 思想을 表示하는 연장의 그 利鈍은 어떠하며 그 變  
 化는 어떻게 되었으며

(라) 宗教가 오늘에는 거의 價値없는 廢物같이 되었지만은 古代에는 確實히  
 一民族의 存亡盛衰의 關鍵이었으니 我的 信仰에 關한 趨勢가 어떠하였  
 으며

(마) 學術 技藝等 我的 天才를 發揮한 部分이 어떠하였으며

(바) 衣食住의 情況과 農商工의 發達과 田土의 分配와 貨幣의 制度와 其他 經濟組織等이 어떠하였으며

(사) 人民의 變動과 繁殖과 또 疆土의 伸縮을 말아 人口의 加減이 어떻게 된 것이며

(아) 政治制度의 變遷이며

(지) 北伐進取의 思想이 時代를 말아 進退된 것이며

(차) 貴賤貧富 各階級の 壓制며 對抗한 事實과 그 盛衰消長의 大勢며

(카) 地方自治制가 太古부터 發生하여 近世에 와서는 形式만 남기고 精神이 衰亡한 因果며

(타) 自來外力의 侵入에서 받은 巨大의 損失과 그 反面에 끼친 多少의 得失이며

(파) 匈奴 女眞等의 一次 我와 分離한 뒤에 다시 合하지 못한 疑問이며

(하) 從古文化上 我的 創作이 不少하나 매양 孤立的斷片的이 되고 繼續的이

되지 못한 怪因等이며

(7) 我的 子子孫孫을 어떻게 教育하였으며 어떠한 教育者 教育施設 教育思想이 었던가 등을

參考論列하야 우리의 歷史를 造作함에 補益이 있게 하야 될 것이다.

### 第二章 史의 三大元素와 朝鮮舊史의 缺點

歷史는 歷史를 爲하야 歷史를 지으란 것이요 歷史以外에 무슨 目的을 爲하야 지으라는 것이 아니다 詳言하자면 客觀的으로 社會의 流動狀態와 거기서發生한 事實을 그대로 적은 것이 歷史요 著作者의 目的을 말아 그 事實을 左右하거나 添附 或 變改하라는 것이 아니다 畫師가 人像을 畫할새 淵蓋蘇文을 그리려면 狀貌魁傑한 그를 그리지며 姜邯贊을 그리려면 形軀倭陋한 그를 그리지니 만일 彼此 抑揚의 마음으로 毫釐라도 相換하면 畫師의 職分에 어길뿐더러 本人의 面目도 알아러니 이와같이 英國史를 지으면 英國史가 되며 露國史를 지

으면 露國史가 되며 朝鮮史를 지으면 朝鮮史가 되어야 하겠거늘 由來 朝鮮에 朝鮮史라 할 朝鮮史가 있었더냐 하면 首肯하기 어렵다.

安鼎福이 東史綱目を 짓다가 慨然히 內亂의 頻頻과 外寇의 出沒이 東國의 古史를 蕩殘케 함을 悲歎하였으나 事實인즉 朝鮮史는 內亂이나 外寇의 兵火에서 보다 곳 朝鮮史를 著作하든 其人들의 손에서 더 蕩殘된것을 느끼지않을수 없다 어찌하야 그러하나하면 時間的繼續과 空間的發展으로 되어 오는 社會活動狀態의 記錄인 故로 時·地·人三者는 三大元素라 一例를 들자면 新羅가 新羅됨은 朴昔 金三姓과 突山高墟等 六部의 『人』으로 써 일뿐이 아니라 또한 慶尙道의 其『地』와 高句麗 百濟의 同時인 其『時』로써 新羅가 됨이니 만일 그보다 進하야 二千年以前의 王儉과 같은 年代거나 降하야 二千年以後 今日の 우리와 같은 時局이면 비록 赫居世의 聖智에 또 六部人에 質直에 雞林의 本張을 가질지라도 當時에 되든 新羅와 꼭 같은 新羅가 될수없으며 또 新羅의 位置가 歐羅巴에 놓였거나 阿弗利加에 있었을지라도 또한 달은 面目의 나라는 될지언정 新羅는

되지 못하였으리니 이는 至明한 理어늘 已往의 朝鮮의 史家들은 迷망 그 짓  
 는바 歷史를 自家目的의 犧牲에 供하여 毒같이 되지 못한다는 명 되는 재조  
 를 부리어 卒本을 띄어다가 成川 或 寧邊에 놓으며 安市城을 띄어다가 龍岡  
 或 安州에 놓으며 阿斯山을 띄어다가 黃海道の 九月山을 만들며 迦毘羅를 띄  
 어다가 江原道の 江陵郡을 만들어 이와같은 許多한 地의 憑藉가 없는 歷史를 지  
 어 더 크지도 말고 더 작지도 말어라 한 鴨綠江以內의 理想的疆域(我邦疆域考  
 曰不大不小克符帝心)을 劃定하라 하며 無亟 一然等 佛子の 지은 史冊에는 佛法  
 의 一字도 流入하지 않은 王儉時代부터 印度의 梵語로 만든 地名 人名이 充  
 滿하며 金富軾等 儒家的 著作 文字에는 孔孟의 仁義를 漠視하는 三國武士의 口  
 中에서 經傳의 辭句가 慣用語같이 傳誦되며 三國史列傳에 累百年間 朝鮮全土의  
 人心을 支配하던 永述安南四大聖의 論說은 볼수 없고 支那留學의 一學生인 崔  
 致遠만 津津히 叙述하였으며

冠史綱에 元曉 義湘 諸巨哲의 佛學에 影輝된 高麗 仁代의 思想界의 어떠함

은 볼 수 없고 王太祖 統一以前에 죽은 崔凝이 그 統一以後에 올린 諫佛疏만  
 적히어 이와같은 許多한 時의 拘束을 받지 않은 歷史를 지어 自家의 偏僻한  
 信仰의 主觀的心理에 符合하려하며 甚한 境遇에는 『人』까지 誣하여 新羅의 金  
 王을 印度의 刹帝利種(三國遺事)이라하며 高句麗의 鄒牟王을 高辛氏後(三國史  
 記)라하며 紀다 朝鮮全民族을 秦漢遺民(東國通鑑 三國史記等)或 漢人之 東來  
 者(東史綱目)라하기까지 하였다.

李朝太宗에 이르러서는 더욱 此等 盲目派의 急先錄이 되어 朝鮮思想의 根源  
 되는 嘗雲觀의 文籍을 孔子의 道에 違背된다하여 一炬의 火中에 던졌다.

李斗璣가 가로대 「近日의 어느 行狀과 墓誌銘을 보든지 그 글中の 主人이 만  
 듯이 容貌는 端嚴하며 德性은 忠厚하며 學問은 程朱를 宗하며 文章은 韓柳를  
 尙하야 거의 千篇一律이니 이는 其人을 誣할뿐 實이라 其文도 價値가 없다」  
 하였으니 이는 個人傳記의 失實에 對한 慨歎뿐이나 이제 尊君賤民의 春秋斧鉞  
 下에서 자라난 後人들이 그 心習으로 三國風俗을 이야기하며 文弱偏小로 自安하



는 李朝當代의 人臣들이 그主觀으로 上古地理를 그릴새 이에 朝鮮(檀君)이나 扶餘나 三國이나 東北國이나 高麗나 李朝나 五千年以來 全朝鮮이 거이 한 도 간이로 부어낸것 같이 地面의 漲縮을 말아 民族活動이 昇降한 점이나 時代의 古수를 쫓아 國民思想의 갈린금을도모지 찾을수가 없다. 「크롬웰」이 畫師가 自己의 像을 그릴때에 그 左目上의 「혹」을 뺨을 不許하야 가로대 「나를 그리라 면 나의 本面대로 그리라」 하였으니 이말은 畫師의 納諫함만 呵斥함이 았이라 곳 自己의 眞像을 잃을가함이어늘 朝鮮史를 지은 己往의 朝鮮의 史家들은 때 양 朝鮮의 혹을 버이고 朝鮮史를 지으라하였다 그러나 그네들의 쓴 眼鏡이 넘 우 凸面인故로 朝鮮의 눈이나 귀나 코나 머리같은것을 혹이라하야 빼이어버리 고 이대서 無數한 혹을 가져다가 붓치었다。

「혹」붓친 朝鮮史도 己往에는 읽는이가 넘우없다가 世界가 大通하면서 外國人들이 往往 朝鮮人을 맞나 朝鮮史를 물으면 問答中에 어떤이는 朝鮮人보다 朝鮮史를 더 많이 아는故로 慚愧한 끝에 돌아와 朝鮮史를 읽는이도 있다. 民族

의 自由를 얻은 今에는 무엇보다도 우리民族의 歷史를 알리고 하는 趨勢인 것 같다 何如든 朝鮮人이 읽는 朝鮮史나 外國人이 아는 朝鮮史는 또다 「혹」 들은 朝鮮史요 옳은 朝鮮史가 알이였다。

己往에 있는 記錄이 그와같이 다들리었으면 무엇에 據하여 考론 朝鮮史를 지을 수 있으랴? 沙金을 나는者—一斗의 沙를 날면 一粒의 金은 얻으나 或은 지못하거나 하나니 우리의 文籍에서 史料를 求함이 이같이 어려운 마라。或은 朝鮮史를 研究하려면 爲先 朝鮮과 滿洲의 等地에 地中을 發掘하여 許多한 發見이 있어야 하리라 金石學 古錢學 地理學 美術學 系譜學—等이 學者가 붙 아져야 하리라하는 云云이 많으나 이도 그리하거나 現存하는 爲先 救急의 方法으로 存在한 史冊을 가지고 得失을 評하며 眞僞를 校하여 朝鮮史의 前途를 開拓함이 急務인가한다。

### 第三章 舊史의 種類와 그得失

朝鮮史에 關한 書類를 次하면 神誌부터 比로 소였나니 神誌는 權壁應製詩에서 檀君時 祭史官이라. 한者라 그러나 檀君은 高 朱(蘇塗) 임금이요 神誌는 人名 이 많이라 高 朱(蘇塗)의 首佐인 官名의 善지(臣智)니 歷代의 臣智들이 때 양 十月 朱(蘇塗)大祭에 宇宙의 創造와 朝鮮의 建設과 山川地理의 名勝과 後人의 鑑戒할 일을 들어 노래하더니 後世의 文士들이 그 노래를 或 更讀文으로 이를 編輯하며 或 漢字의 五言詩로 이를 譯勝하야 王宮에 秘藏한故로 神誌秘詞 或 海東秘錄等 名稱이 있었다 그 적은바가 事實보다 箴言이 많아서 昔人이 往往 豫言의 一類로 보았으나 李朝太宗이 儒學을 中心하고 그 밖에 一切를 排斥 하야 異端視하는 文字를 모두 燒火할때 神誌도 그 때에 厄運을 免치 못하야 겨 우 高麗史 金謂碑傳에 적힌

「如秤錘極器秤幹扶蘇探錘者五德地極器百牙岡首尾均平位與邦定太平朝降七十國賴德護 神精若廢三諭地王業有衰傾」이라한것 열작만 傳하였다. 만일 그 全部가 다 남아 있으면 우리 의 古事研究에 얼마나 大力을 주리오 北扶餘는 王儉以後 그 子孫

들이 서로 그 寶藏을 직하여 太平殷富로서 자랑하야 (晉書扶餘傳 其國殷富 自先世以來 未嘗破壞) 可觀할 史料가 많았으나 慕容廆의 亂에 그國名과 함께 亡失하고 高句麗는 東明聖帝 大武神王의 際에 史官이 朝鮮上古부터 高句麗初葉까지의 政治上事實을 記載하야 「留記」라 이름한것이 百卷이였더니 魏將 毋丘儉의 亂에 被奪하였으나 檀君王儉의 名과 三韓扶餘의 略史가 魏書에 具載함은 魏人이 「留記」에서 주석간바며 그뒤에 百濟中葉에 高興博士가 「書記」를 지으며 高句麗末葉에 李文眞博士가 「新集」을 지으며 新羅는 眞興大王的 全盛時代에 居蔡夫가 新羅故事를 著述하야 三國이 다 一代의 典故를 備하였으나 今일에 그 片言隻字도 끼친者 1 없으니 이는 天下萬國에 없는 일이다。 歷史의 靈이 있다하면 倜儻의 눈물을 뿌리리라。

以上에 말한바는 다 一種의 政治史어니와 麗 濟亡後에 新羅는 武를 假하고 文을 修하야 相當한 著史가 間出하였으니 無名氏의 仙史는 宗教史로 볼것이며 魏弘의 鄉歌集은 文學史로 볼것이며 金大問의 高僧傳과 花郎世記는 學術史로

볼것이니 史學이 발달함 進步되었다 할것이나 이것들도 크다 漢學의 碑가 되었

다. 高麗에 와서는 作者의 姓名을 알수없는 三韓古記 海東古記 三國史記와 金富

軾의 三國史記의 一然의 三國遺事가 있었으나 이제까지 傳한것은 三國史記의

三國遺事뿐인데 그 傳不傳을 생각전대 富軾 一然 南人단의 著作이 優勝하여

이것만이 傳한것이 아니다. 대가 高麗初葉부터 平壤에 奠都하고 遼河의 北部의

故疆을 恢復하자는 花郎의 武士가 一派가 되며 專大를 國是를 論한 陽綠以內

의 偏安을 주장하는 儒教徒가 一派가 되어 兩派가 論鋒을 鏖하여 討論한지 數

百年만에 佛子妙清이 花郎의 思想에다가 陰陽家의 迷信을 傳하여 平壤에 舉兵

하여 北伐을 實行하려다가 儒徒인 金富軾에게 敗亡하고 富軾이 傳한 專大

主義를 根本하여 三國史記를 지은것이다. 故로 東北兩扶餘를 傳하여 朝鮮文化의

所自出을 塵土에 묻으면 渤海를 버리어 三國以來 結晶된 文明은 草莽에 던

지며 吏文과 漢譯의 區別에 어두어 一人이數人되고 一地가 數地를著—함으로써

內史나 外籍의 取捨에 홀려서 前後가 矛盾되고 事件이 重復한 자 많아 거의 史的價値가 없다 할 것이나 不幸히 그 뒤 未幾에 高麗가 蒙古에 敗하여 忽必烈의 威風이 全國을 震驚하야 皇京帝宮 등의 名詞가 撤廢하며 海東天子의 八關樂府가 禁止되고 由來 文獻에 만일 獨立自尊에 關한者 있으면 一切로 忌諱가 될 때에 歷史로 許多의 著作中에 唯一한 事大思想의 鼓吹者인 金富軾의 三國史記와 그 附庸인 三國遺事가 傳할 밖에 없게 되었다.

高麗當代的 史乘을 말하면 高麗末世에 君臣들이 高宗以前에의 勢强盛하던 때에 記錄은 더욱 蒙古의 忌惡를 觸할가 恐하야 刪削하며 或 塗改하고 오즉 率辭厚幣로 北方強國等에게 服事던 事實을 敷衍 或 偽造하야 民間에 傳布하더니 此等 記錄이 李朝 鄭麟趾가 撰述한 高麗史의 藍本이 되었고 李朝世宗이 非常히 史冊에 留意하였으나 다만 그 한아비인 太祖와 아비인 太宗이 虎頭宰相 崔瑩의 北伐軍中에 叛하야 事大의 旗幟를 들고 革命의 基礎를 세운 故로 權近 鄭麟趾等을 命하야 朝鮮史略 高麗史 高麗史節要等을 編纂할새 蒙古의

壓迫을 받은 高麗末葉以前의 朝鮮의 各種實記에 據하여 史를 짓지 못하고 蒙古의 壓迫을 받은以後 外國에 諂媚한 文字와 偽造한 故事에 據하여 史를 지어 苟且히 業을 卒하고 正작 前氏의 實錄은 人間에 傳布됨을 不許하고 奎章閣內에 秘藏으로 두었다가 壬辰倭亂의 兵火에 沒燒하였다。

그뒤에 世祖가 端宗의 位를 奪하고 滿洲侵略의 夢을 抱하여 江界에 屯兵을 經營하다가 (一) 自家太祖의 尊明建國의 主義에 衝突되어 諸臣의 諫爭이 紛忙하며 (二) 支那大陸의 勇武陰鷲한 明主成祖가 있어 朝鮮에 對한 偵察이 嚴密하며 (三) 마침내 明使 張寧이 嚴重히 屯兵의 理由를 詰問함으로 世祖는 尙武喜功의 心이 雲消하고 朝鮮文獻의 整理로 自任하여 佛經을 印하며 儒學을 獎하는 以外에 史料收集에도 專力하여 朝鮮歷代戰爭史인 東國將鑑과 朝鮮風土史인 東國輿地勝覽을 編述하고 그以外에도 許多한 書籍을 刊行하였으니 비록 多大한 貢獻은 없었으나 微少한 業績은 있다 할것이다。

宣祖 仁祖以後에는 儒敎界에 哲學文學의 巨子가 輩出하며 史界도 차차 進步

되어 許穆의 檀君新羅等各世記가 너무 簡略하나 往往 獨得의 見이 있으며 柳 馨遠이 比魯 史에 關한 專著가 없으나 歷代政治制度를 論述한 礪溪隨錄이 또 한 史界에 裨益이 적지 않으며 韓百謙의 東國地理說이 比魯 數十行에 不過하는 簡短한 論文이나 一般 史學界에 大光明을 얼어 後來 丁若鏞의 疆域考나 韓鎭 書의 地理志나 安鼎福의 東史綱目에 附載한 疆域論이나 그外에 各家의 朝鮮歷 史地理를 說하는者 多다 韓先生의 그簡短한 地理說을 敷衍하였을뿐이다. 그러나 그地理說中에 三韓과 朝鮮을 分開함이 范曄의 傳한 東夷列傳의地理를 說明함에 는 足하나 이로써 朝鮮古代三千年間의 地理를 斷定하여 「我國自古漢江以南爲三韓 漢江以北爲朝鮮」이란 結論을 내린것은 너무나 盲昧的이오 武斷的이라 고볼수 있 다.

이는 先生이 三神 三京 三韓 三朝鮮의 聯絡的 關係와 發朝鮮發肅慎夫餘朝鮮 濊貊朝鮮辰國震國眞番朝鮮辰韓摩立干馬韓慕韓等の 同音異譯됨을 弄음으로 이같은 大錯誤가 있음이나 그러나 東夷列傳에보인 三韓의 位置는 先生으로부터 비르소



簡明히 剖釋하야 已往에 史의 記錄만 있고 史의 研究가 없었다고 할만한 朝鮮 史界에서 先生이 처음 史學의 端緒를 열었다 하여도 可할 것이다。

安鼎福은 終身을 歷史一門에 努力한 五百年來 唯一한 史學專門家라 할지나 그 러나 다만 山野의 寒儒로서 書籍의 閱覽이 不足하야 三國史記같은 것도 그 晩 年에야 겨우 人家의 手書한 冊의 誤字 많은 것을 얻어 보았음으로 그 著述한 東史 紀目에 弓裔의 國號를 摩震紀라 한 笑話를 썼으며 支那書籍中에도 參考에 必要한 魏略이나 南齊書같은 것에 存在함을 몰라서 孤陋한 言句가 적지 않으며 게다가 時代에 流行하는 孔丘春秋 朱熹綱目的 科臼에 따져 箕子本紀미테 檀과 夫餘를 附庸으로 하며 新羅終局 끝에 弓裔와 王建을 僧主로 한 妄發도 있고 너무 皇室中心의 主義를 固守하야 正작 民族 自體의 活動을 無視함이 많았다。

그러나 研究의 精密은 先生의 以上이 無는故로 地志訛誤의 校正과 事實矛盾의 辯證에 가장 功이 많다 하여도 可할 것이다。

柳惠風の 渤海考는 大氏三百年間 文治武功의 事業을 收錄하야 千餘年 史家の

鴨江以北創棄한 缺失을 追補하며 李鍾徽의 修山集은 檀君以來 朝鮮固有한 獨立的文化를 詠歌하야 金富軾以後 史家의 奴隸思想을 喝破하야 特有한 發明과 探輯은 없다하여도 다만 이한가지로도 또한 不朽에 垂할것이다。

韓致滌의 海東釋史는 오즉 支那 日本等 書籍中에 보인 本史에 關한 文字를 蒐集하야 居然히 巨帙을 만들었을뿐 않이라 三國史에 빠진 夫餘 渤海 駕洛 肅慎等도 모다 一篇의 世紀가 있으며 東國通鑑에 없는 姐瑾沙法名慧慈王仁等도 各其 幾行의 傳記가 있으며 宮語文字 風俗等의 分門이 있고 게다가 그 族하 鎭書氏의 地理續이 있어 後人 考證의 勞를 덜뿐않이라 또한 史學에 頭腦가 있다할것이다。 다만 (一) 너무 字句間에서 朝鮮에 關한 事實을 찾다가 民族大勢의 關係를 잃어 夫妻와 夏禹의 國際大交際로 불 吳越春秋의 州慎의 蒼水 使者와 二千年間 匈奴와 燕과 朝鮮과 或和或戰한 前後大事를 다 闕漏하며 (二) 儒敎의 勢力에 놀리어 孤竹國이 朝鮮族의 分系됨을 發見치 못하는 同時 에 伯夷叔齊의 姓名을 脫落하며 (三) 書籍選擇의 不精이니 晉書東哲傳으로 보면

禹殺伯益太甲殺伊尹等を 記한 竹書紀年の 眞本이오 現存한 竹書紀年은 僞書이여  
 늘 이제 그 僞書를 論駁없이 그대로 信用하며 司馬相如의 茂陵書는 唐人의  
 僞造인데 그대로 信用하며 이밖에 支那에나 日本에나 없는 事實을 만들어 본  
 國을 誣辱한者를 많이 그대로 輸入한것이 該書의 缺憾이 많이다 할수 없다.  
 李朝一代의 事를 적은 歷史로 말하면 正宗朝한때에 記錄을 만든 「修書」라는  
 蠅頭細字로 쓴 二百卷의 巨帙이 있었다. 만일 官書의 國朝寶鑑 朝野僉載等を  
 始하여 許多한 私家의 著述한 史書까지 치면 幾百의 車輒을 折할것이다. 그리  
 나 그의 內容의 十之七八은 四色黨戰史일이나 嗟夫라 李朝以來 數百年 朝鮮民  
 族의 文化事業은 이에 停滯되었다. 以上에 列擧한 歷史의 書類를 再論하자면  
 대개가 政治史들이고 文化史의 相當한者는 覓못됨이 一憾이요 政治史中에도 東  
 國通鑑 東史綱目以外에는 古今을 會通한 著作이 없고 모다 一王朝의 興亡顛末  
 로 끝의 首尾를 잡았음이 二憾이요 孔丘의 春秋를 史의 極則으로 알아 그 義  
 例를 效嚙하여 尊君抑臣을 主하다가 民族의 存在를 잊으며 崇華攘夷를 主하다

가 末乃에 自國까지 撰하는 辭論에까지 일음이 三憾이요 國民의 資鑑에供하라 함보다 外人에게 諂媚하랴한 意思가 더 많어 (李修山一派를 除하고) 自家의 疆土를 寸寸尺尺이 割讓하야 末乃에 建國時代의 首都까지 물으게 하였음이 四憾이다。 우리의 史學界가 이와같이 盲聾跛躄의 各病을 모다 가지어 正當한 發達을 일지 못함이 무슨 까닭이노? 너무 頻煩한 內亂外患 天然禍災等에 任한者는 그만 두고라도 人爲의 障礙로 일운자로 들전대

(一) 神誌以來歷史를 秘藏하든 버릇이 歷史의 痼疾이 되어 李朝에서도 中葉以前에는 東國通鑑 高麗史等 數種의 官行本 以外에는 私史를 禁하였음으로 李暉光이 內閣에 들어가서 高麗以前의 秘史를 많이 보았다 함이며 李彦迪이 沙伐國傳을 지어 朋友에게 보임을 忌함이라 現代王朝의 得失을 記錄하지 못하게 함은 他國에도 或有하거니와 往古史의 私著나 私覽까지 禁함은 我國에 獨有하야 歷史를 읽는이가缺하였나。

(二) 松都를 지나다가 滿月臺를 쳐다보아라 半片의 瓦가 끼쳤드냐? 一個磗가

남았느냐? 漠莫한 田土中에 이름만 滿月臺라 할뿐이 아니더냐? 嗟夫라 滿  
 月臺는 李朝의 父行되어 멀지않은 高麗朝의 宮闕로 무는 兵火에 타다는 傳  
 說도 없는데 어찌 이와같이 無情한 遺墟만 남았느냐? 이와 同一한例로 扶  
 餘에서 百濟의 遺物을 찾을수 없으며 平壤에서 高句麗의 舊型을 볼수 없도  
 다. 이에서 나서는 結論은 後起한 王朝가 前朝를 미워하여 歷史的으로 자랑  
 할만한 것은 무엇이던지 破壞하여 燒蕩시키기로 爲主한 까닭에 新羅가 興하매  
 麗濟兩國史가 볼것 없게 되고 高麗가 興하매 新羅史가 볼것 없게 되고 李  
 朝가 代하매 高麗史가 볼것 없게 되어 매양 現在로서 過去를 繼續하려 않  
 이하고 抹殺하려하였도다. 그리하여 歷史에 쓰일 材料가 薄弱하였다.

(三) 顯宗이 「鳥銃의 기리가 얼마냐?」하매 柳赫然이 두손을 들어 「요만」하  
 다. 形容하였다. 記注官이 그 問答의 情形을 바다 쓰지 못하야 북방아만 지었  
 다. 柳赫然이 돌아보며 「上問鳥銃之長於柳赫然 然舉手尺餘以對曰如是라 쓰지 못  
 하느냐」고 叱責하였다. 肅宗이 朴泰輔를 鞠問할새 「이리저리 잔뜩 結縛하고 문

어리들로 때려라」하매 注書 高司直이 서슴없이 「必字形縛之無隅石擊之」라 썼다. 그래서 크게 肅宗의稱讚을받았다한다. 이것들이 宮廷의 佳話로 傳하는 이야기지마는 反面에서 남의 글대로 內歷史를 記述하기 恨들을 볼것이다. 國文이나기도 늦게 났지마는 漢文著述의 歷史만 있음이 또한 奇怪하도다. 이는 歷史傳述의 器具가 不適함이였다.

(四) 晦齋나 退溪에게 元曉나 義湘의 學術史上 位置를 붙으면 一句의 對答을 못할것이며 元曉와 義湘에게 蘇塗나 奈乙의 信仰的價値를 말하면 半分の 理解를 못할것이며 이와 比例로 李朝의 人士들이 高麗時代生活의 趣味를 붙으며 高麗나 三國의 人士들은 또 三韓以前生活의 趣味를 붙을만큼 飯食居處信仰教育等 一般社會의 形式과 精神이 모두 激變하야 今口「아메리카」사람으로 明日「로시아」사람 됨과 같은 懸隔이 있으니 이는 歷史思想의 斷絶함이리.

어대서 過去를 溯究할 動機가 생기리오  
右 數種의 原因으로 史學이 發達이 되지 못할것이다.

三百年間 四色の 黨戰이 巨大하게 國家에 害를 끼쳤다하나 黨論이 劇烈할사  
 록 各其 我是彼非를 傳播하기 爲하야 私家的 記述이 盛行하며 黨의 是非가  
 대양 國政에 關係됨으로 말아서 朝廷의 得失을 論述하게 되어 不知中에 歷史  
 私著의 禁이 打破되고 마침내 韓百鍊 安鼎福 李鍾徽 韓致滌等 史學界 幾個人  
 物들을 産出함도 그 結果이다.

或은 「四色以後의 史는 彼此的 記錄이 서로 矛盾되어 그 是非를 分析할수 없  
 어 가장 史의 難關이 된다」하나 그러나 彼等의 是非가 무엇이냐하면 某黨이  
 李朝의 忠臣이니 逆賊이니 某先生이 朱學의 正統이니 僞統이니 하는 問題들뿐  
 이니 守日에 守日의 守日의 守日의 守日의 守日의 守日의 守日의 守日의 守日의 守日의  
 내인 蓋蘇文을 快男이라 할것이며 己見을 主張하야 明倫堂기동에 孔子譏評한 文  
 句를 붙인 尹白湖를 傑物이라 할지니 故로 우리는 다만 冷靜한 頭腦로서 晦  
 齋 花潭 退溪 栗谷의 學術上 貢獻의 多寡나 알을지니 朱子의 正統되는 與否  
 는 談話이 될것이 며 老論少論南人北人의 分爭이 政治上 實인 影響의 良惡을

물을지니 李朝의 忠奴되는 與否는 夢囈가 될뿐이라 至於個人私德의 缺點을 指  
 摘하여 남의 名譽를 貶抑하며 或 曖昧한 事實로 남을 構陷하여 죽인 許多한  
 疑案은 그反面에서 社會傾軋의 惡習으로 民과 國을 害한 一種 可痛할 史料됨을  
 不辨이니 만일 서어머니의 역정과 며나리의 푸닥거리 同類에 不過한일에 「一  
 히 裁判官을 불려 그 曲直을 判決하라하면 이는 「수편사르」의 일은바 「이웃집  
 고양이 색기 낳았다」는 報告「같이 도리어 일로써 史界의 大는 重大한 問題들  
 閑却할 念慮가 있으니 玆저들이 可하다고 말리 地理의 關係라던지 國民生活의  
 關係라던지 民族盛衰消長이라던지等 大問題에 注意하여 訛를 正하며 眞을 求하  
 야 朝鮮史學의 標準을 세움이 急務의 急務이다。

#### 第四章 史料의 蒐集과 選擇

한거름을 더 나아가 어대서 무엇으로 우리의 歷史를 研究하여야 되겠느냐 하  
 면 매우 困難하나 대개 다음과 같은 點을 밝아야 될줄 믿는다。



(一) 古碑의 參照에 對하여

西郭雜錄(著者失名)에 「申砮聞先春嶺下有高句麗舊碑潛遣人渡豆滿江模本而來所可辨  
 識者不過三百餘字其曰皇帝高句麗王自稱也其曰相加帝高句麗大臣之稱也」라고 있다. 이  
 와 같은 것을 端緒로 하여 빛나는 우리歷史의 遺漏된 것을 찾아낼 수 있다. 滿洲深  
 山에는 千古故事의 缺을 補할만한 斷碑가 處處에 있다한다. 일즉이 찾지 못함이  
 遺憾이다. 海參威에서 「히바롭스개」로 往來하는 海路中에 傳說로 내려오는 錫赫山  
 嶽에 屹立한 尹瓘(或은 蓋蘇文)의 紀功碑가 있다하며 通州邑東便七十里許에  
 解夫婁의 頌德碑가 遺存한다하며 海龍縣에 죽어서 龍이 되어 日本三島를 陷沒하  
 겠노라한 文武大王의 遺廟가 있다하는 등. 모두가 舊疆踏查의 懷抱를 禁할 수 없게  
 한다. 其中에도 特히 有名한 것은 鴨綠江上의 輯安縣 곧 第二丸都城에 있는 廣  
 開土王陵碑이다. 이것은 朝鮮人의 손으로 建立된 最古의 石文이다. 高句麗平壤遷  
 都以前의 故都인 國內城의 附近 滿洲通化省輯安縣東崗碑石街에 있다. 輯安縣은 우리  
 平安北道江界郡滿浦鎮의 對岸에 當하니 縣城이 곧 國內城의 遺蹟이요 縣城所在

의 盆地를 우리先人은 皇城坪이라 일러왔다。碑는 高句麗 最太의 英主인 第十 九代廣開土王의 陵域에 세운 勳績記錄이니 그 長壽王二年甲寅에 建立한 것이다。 王은諱를談德이라하니 十八歲에 卽位하여 建元하되 永樂이라하여 號를 永樂太王이라하고 在位二十二年間에 城六十四 村一千四百을 攻破하여 高句麗의 全盛期를 짓고 特히 우리의 疆域을 크게 擴張하여서 威風이 四隣에 떨치었다。王이 登 遐하매 陵兆를 國崗의上에卜하고 高句麗前代에 例를 보지못하는 石文을 만들 어서 그勳業을 傳함과 함께 陵域守護의 典制를 銘記한 것이다。碑에 王의 號를 「國罡上廣開土境 平安好太王」이라 이컬으니 國罡上은 그陵域의 所在를 表示하 는것으로서 高句麗古代에 陵으로써 王의 號를 삼음이 「故國原」 「小獸林」 「故國 壤」 등에서 봄과 같으며 「廣開土境」은 一代의 勳業을 端的히 表示한 句語이며 「平安好太王」은 前句와 連하여 諡號비스름히 奉上한 微號일 것이다。碑身은 高 二十二尺의 穹然한 一立石을 自然한대로 材料로 하여 四方全面에 거의 空隙이 없이 合四十四行一千八百餘字를 大書深刻하니 「字大約四寸」碑의 巨大하고 書의 雄樸

함이 다 大國의 盛時를 表象하기에 足하다. 碑文의 內容은 몬저 始祖鄒牟王以降의 世系를 叙하고 다음 廣開土王의 戰功을 述하고 거괴이여 守墓烟戶의 制를 定하여서 永世不刊의 典을 삼으려한 것이니 王一代의 事實에는 國史와 同 當時 國際史의 闕軼을 補足할 것이 많으며 그 書는 漢隸의 一典型으로 또한 有名하다.

그다음 震域最古의 石文이고 平安南道龍岡郡雲坪洞에 있는 漢의 덤에 粘蟬神祠 碑와 滿浦鎭對岸 下羊魚頭一古墳에서 發掘한 高句麗大使者 牟頭婁墓誌와 新羅 眞興王 四碑(昌寧碑、北漢山碑、黃草嶺碑、磨雲嶺碑) 등은 根據있는 史料라고 볼 수 있다.

또 我邦金石學者 金正喜(秋史)의 發見한 遺蹟을 支那人이 가져다가 刊行한 「海東金石苑」은 羅末 麗初의 思潮와 俗尙을 앞에 參考될 것이 많으며 日本總督 府發行에 系한 朝鮮故蹟圖本도 그 調査動機는 如何든 註解의 索強한 幾部分을 除하 면 또한 우리 古史研究에 補助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二) 各書의 互證에 對하여

일즉 高麗史 崔瑩傳에 據한즉 崔瑩이 가로대 「唐이 三十萬兵으로 高句麗를 侵하  
 때 高句麗 僧軍三萬을 發하여 此를 大破하다」하였으나 三國史記五十卷中에 이  
 事實이 보인곳이 없다. 그러나 僧軍이 무엇이나? 하면 徐兢의 高麗圖經에 關하  
 대 「在家和尚은 袈裟도 입지 않으며 戒律도 行치 않으며 皂帛으로 腰를 束하  
 고 徒跣하여 걸으며 妻를娶하며 子를 養하며 器用의 負戴와 道路의 掃除와  
 溝洫의 開治와 城室의 修築等 公事에 服役하며 邊陲에 賊警이 있으면 스사로  
 團結하여 赴戰하는데 中間에 契丹도 此輩에게 敗하니 其實은 刑餘의 役人인데  
 夷人이 그 鬚髮을 髡削한 故로 和尚이라 名함이타」하니 이에서 僧軍의 面目  
 을 대강 알수 있으나 그러나 그 來歷이 어대서 비롯하였느냐의 疑問이 없지  
 않다. 이에서 通典新唐書等 各書에 據하면 皂衣(或曰帛衣) 先人이라 官名이 있  
 고 高句麗史에 明臨答夫를 掾那皂衣라하고 後周書에는 皂衣先人을 驛屬仙人이라  
 하였으니 先人 仙人은 다 우리國語의 「선인」으로 漢字로 音譯함이요 皂衣라

或 帛衣라 함은 圖經이 일은바 「帛帛」으로 腰를 束함으로 名함이니 仙人은 新羅故事의 國仙과 같은 宗教的武士團의 團長이요 僧軍은 國仙의 手下에 屬한 國兵이요 僧軍이 在家和尚이라 함은 後人이 加한 別名이니 徐兢이 外國의 使臣으로 我國에 와서 이것을 보고 그 團體의 行動을 叙述할새 그 根源을 몰음으로 刑餘의 役人이라는 揣測의 名詞를 붙임이다。 이에 高麗史로 因하야 三國史記에 따진 僧軍을 알게 되며 高麗圖經으로 因하야 高麗史에 자세히 알은 僧軍의 性質을 알게 되며 通典新唐書 後周書 新羅故事 등으로 因하야 僧軍과 先人과 在家和尚의 同一한 團體의 黨徒됨을 알게 되니 다시 말하면 唐의 侵入하는 三十萬大兵이 宗教的武士團인 先人軍에게 大敗하였다는 幾十字의 略史를 六七種書籍 數千卷을 涉獵한 結果에서 비로소 按出한다。

唐太宗이 高句麗를 侵하다가 安市城에서 활에 맞아 눈을 傷하였다는 傳說이 있어 後人이 때양 史에 올리며 李穡의 貞觀(唐太宗의 年號) 吟에도 「那知玄花(目) 落白羽(矢)」라 하야 그 實然함을 證하였으나 그러나 金富軾의 三國史記

와 支那人의 新舊唐書에 보인다. 가 없음은 何故이나? 만일 事實의 眞僞를 不  
 問하고 一은 取하고 一은 捨하다가는 歷史上的 僞證罪를 犯할지라 故로 다만  
 「唐太宗의 是 傷한 事實을 支那의 史官이 國恥를 諱하야 唐書에 隱 것이 不  
 인가?」하는 疑問을 가지고 그 解答을 求하더니 從來에 明人 陳霆의 兩山墨談  
 에 據한즉 宋太宗이 契丹을 치다가 流矢에 傷하야 返歸한지 數年餘에 畢竟  
 그 矢瘡이 發하야 崩하였다하니 이를 宋史나 遼史에 보이지 않음은 事件이 累  
 百年後 陳霆의 考證에 發見된 바라. 이에 支那人은 그 君臣이 外族에게 敗하  
 야 傷하거나 죽거나 하면 이를 國恥라 하야 史에 諱匿하는 實證을 얻어 나의  
 假說을 成立하였다. 그러나 支那의 國恥諱匿하는 버릇이 있다 하야 드리어 唐  
 太宗이 安市城에서 戰에 傷함이 確實하다는 實證이 못되니 다시 新舊唐書를  
 取하야 詳閱하지 않으면 안된다. 太宗本紀에 唐太宗이 貞觀十九年九月에 安市城에  
 서 回軍하였다 하고 劉洎傳에 그 同年十二月에 太宗의 病勢가 危急함으로 劉洎  
 가 甚히 悲懼하였다고 本紀에 貞觀二十年에 上의 病이 全瘳치 못하야 太子에게

政事를 委하다하고 貞觀二十三年五月에 上이 崩하였다하였는데 그 崩落의 原因은 綱目에는 痢疾이 다시 增劇함이라하고 資治通鑑에는 遼東서부리 病廢의 患이 있었다하니 대개 尊者와 親者의 被辱을 諱하여 周天子의 鄭侯의 활에 傷함과 魯隱公 昭公 등의 被殺함과 被追함을 春秋에 쓰지않은 孔丘의 僻見이 支那 歷史家의 習心이 되어 唐太宗의 이미 빠진 눈을 琉璃片으로 가리우며 그 臨床病錄의 報告를 모다 變 말로 바꾸어 箭瘡이 內腫이 되며 眼痛이 肛門病이 되며 戰爭의 負傷으로 죽은 者가 痢疾이나 肋膜炎의 患病에 죽은 記錄을 하였다. 그러면 三國史記에는 어찌 實際대로 적지 않았는가? 이는 新羅가 麗濟 兩國을 미워하여 그 名譽의 歷史를 燒蕩하여 魏兵을 깨친 沙法名과 隋軍을 물리친 乙支文德이 다 도리어 支那史로 因하여 그 姓名을 傳하게 함이니 (乙支文德의 三國史記에 보임은 곧 金富軾이 支那史에 採用的 故로 그 論評에 「乙支文德이 中國史가 많이면 알리가 없다」 함) 唐太宗이 알고 다라남이 高句麗戰史에 特記할 名譽인즉 羅人의 拔去함이 또한 事實 當有할 일아라. 그런즉 우리가

唐太宗의 눈 따진 일을 처음 傳說과 牧隱集에서 依稀하게 按出하여 新舊唐書나 三國史記에 이것을 記載치 않은 疑問을 깨칠새 陳寔의 兩墨談에서 同類의 事項을 發見하며 孔丘의 春秋에서 그 傳統의 惡習을 摘發하고 新舊唐書通鑑綱目等を 가져 그 模糊隱微한 文句속에서 第一 唐太宗病(痢疾等) 錄報告의 失實임을 喝破하며 第二의 牧隱 貞觀吟(唐太宗의 눈맞은 事實로 지은)의 信用할 單함을 證實하며 第三에 新羅人이 高句麗勝利의 歷史를 毀損함으로 唐太宗의 戰敗負傷한 事實이 三國史記에 따지게 되었음을 斷定하고 이에 簡單한 一結論을 얻으니 일은바「唐太宗이 寶藏王三年에 安市城에서 눈을 傷하고 도망하여 돌아가서 當地에 外科醫療의 不完全함으로 거의 三十個月을 叫痛하다가 寶藏王五年에 崩逝하였다」의 數十字라 이 數十字를 열기에도 五六種書籍數千卷을 反覆하며 出入하여 或은 無意中에서 獲得하며 或은 有意中에서 按出하여 얻은 結果이니 그 勞役이 또한 적지 않다.

僧軍의 來歷을 물으면 무엇이 害되며 唐太宗 負傷한 事實을 안들 무엇이



利하기에 이런 事實을 힘써서 探索하나노? 하는이가 있겠지마는 그러나 史學  
 이란것은 個別을 蒐集하며 誤傳을 校正하여 過去人類의 行動을 沿革하여 後人  
 에게 끼치는것일뿐 謫이라 하물며 僧軍 곧 先人軍의 來歷을 물으면 다만 高  
 句麗가 唐兵三十萬을 물리친 原動力뿐 謫이라 곧 이 앞에 明臨答夫의 革命軍  
 의 中心과 姜邯贊의 契丹을 깨친 軍隊의 主力을 다 무엇인지 물으며 말아서  
 三國부터 高麗까지의 千餘年軍制上 重要한 部分을 물을지며 唐太宗이 眼痛으로  
 죽은줄을 물은다면 安市城 戰局의 速結한 原因을 물을뿐 謫이라 新羅와 唐의  
 聯盟된 公案이며 唐高宗의 君臣이 一切의 犧牲을 不願하고 高句麗와 興亡을  
 결은 前提며 高句麗와 百濟가 서로 携手하게된 動機인것들을 물을것이다. 그러  
 나 右에 擧한바는 그 一二의 例뿐이라 이밖에도 이같은 일이 많을지 물을것  
 이니 故로 朝鮮史의 荒蕪를 開拓하자면 到底히 一二人 幾個年의 힘으로 完結  
 할바 謫임을 了解할것이다.

(三) 各種各詞의 解釋에 對하여

我國의 古代에 「후에넛기」人이 「에집트」의 象形字를 가져다가 「알파벳트」를 만든것같이 漢字를 가져다가 吏讀文을 만들때 그 草創하던 처음에는 漢字의 子音을 取한것도 있고 或 字義를 取한것도 있으니 三國史記에 보인바 人名으로 보면 「炤智一名毗處」라함은 「빛」의 義가 炤智가 됴이며 音이 毗處로 됴이요 「素那一名金川」이라함은 「쇠내」의 義가 金川이 됴이며 音이 素那가 됴이요 「居添夫一名荒宗」이라함은 「거칠위」의 音이 居添夫가 됴이며 義가 荒宗이 됴이요 「蓋蘇文一名蓋金」는 「신」의 音이 蘇文이 됴이며 義가 金이 됴이요 「異斯夫一名昔宗」은 「잇위」의 音이 異斯夫가 됴이며 義가 昔宗(訓蒙字會에 昔를「잇」으로 訓함)이 됴이요 地名으로 보면 「密城」云推火」라함은 「밀부」의 音이 密城이 됴이며 義가 推火가 됴이요 「熊山」云孔木達」이라함은 「곰대」의 義가 熊山이 됴이며 音이 孔木達이 됴이요 「雞立嶺」一名麻木嶺」이라함은 「저름」의 音이 雞立이 됴이며 義가 麻木이 됴이요 「母城」云阿莫城」이라함은 「어미」의 義가 母가 됴이며 音이 阿莫이 됴이요 「黑壤」云今勿奴」라함은 「거물라」의 「거물」의

義가 黑이 됨이며 音이 勿이 됨이며 壤과 奴는 다 「라」의 音을 取함이고 官名으로 보면 「角干을 或 發翰」이라 함은 「불」의 義가 角이 되고 音이 發이 되며 干과 翰은 다 「한」의 音을 取함이니 불한은 郡王의 稱이요 釋薩을 或 道使라 함은 「라」의 義가 道가 되고 音이 釋가 되며 「살」의 義가 使가 되고 音이 薩이 됨이니 「라살」은 地方長官의 稱이요 「말한 불한 신한」은 三神에서 源한 者인데 義로서 天一地一太一이 되고 音으로서 馬韓 下韓 辰韓이 됨이며 「도가 개가 크가 소가 말가」는 五大臣의 稱號인데 「도 개 크 소 말」 등은 義로 「가」는 音으로서 猪加 狗加 大加 牛加 馬加가 됨이라。

이같은 細瑣한 考證이 무삼 歷史上의 大事가 되느냐? 이것은 細瑣한 듯하나 地誌의 誤도 이로서 校正 할수 있으며 史料의 疑도 이로서 添補할수 있으며 古代의 文學부터 一切 生活狀態까지 研究하는 열쇠가 될것이니 例를 들자면 解慕瀨와 柳花玉后의 맞나든 鴨綠江이 어디냐? 수鴨綠이라 하면 當時 夫餘 서 울인 哈爾濱과 넘어 멀고 달은 곳이라면 달은 곳에 鴨綠이 없어서 그 疑問

을 개치지 못하였더니 第一步에 廣開疆土 好太王의 碑의 鴨綠江을 阿利水라 함을 보고 鴨綠의 名이 「아리」 곧 阿利에서 나왔음을 깨달았다. 第二步에 遼史의 「遼興宗의 鴨子河를 混同江이라 改名」한것을 보고 「鴨子」 곧 「아리」 인즉 混同江—即松花江—이 古代의 北鴨綠江인가」인가의 假說을 얻었고 第三步에 東史綱目考異에 「三國遺事의 『遼河一名鴨綠』과 朱熹의 『女眞起據鴨綠江』을 引하여 三鴨綠이 있다」함을 보고 松花江을 古代의 一鴨綠임을 알고 말아서 解慕瀨夫妻의 맞나던 鴨綠이 곧 松花江임을 定하였다. 馬韓傳에 「卑離」를 乾隆帝의 三韓證錄에는 滿洲의 貝勒(패리)와 같이 官名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三韓의 卑離는 三國地理志百濟의 夫里나 卑離 夫里는 다 「울」의 取音이요 都會의 義이니 馬韓의 卑離와 百濟의 夫里를 參照하면 馬韓의 辟卑離는 百濟의 波夫里요 如來卑離는 爾陵夫里요 牟盧卑離는 毛良夫里요 盛奚卑離는 古莫夫里요 山塗卑離는 未冬夫里요 古臘卑離는 古莫夫里니 비록 매양 此音彼義의 異譯이 있으나 그 大略을 어 들지며 因하여 朝鮮이 管仲과 싸우던 때에 山西省이나 永平府에 비

의 露를 둔바 契耳로 卑離 곧 「을」의 譯이라。 이에서 朝鮮古代의 을이 곧 山海關以西까지에 있었음을 알지라 故로 細環한 考證이 歷史上의 大事가 않이 나 돌이어 歷史上의 大事를 發見하는 緣장이 되는것이라 하겠다。 만일 다시 한겨름을 進하야 訓蒙字會處容歌 訓民正音等에서 古語를 研究하고 三國遺事에 쓰인 鄉歌에서 吏讀文의 用法을 研究하면 歷史上 許多한 發見이 있을 것이 다。

(四) 僞書의 辨別과 選擇에 對하야

我國은 古代에 珍書를 焚棄한때 (李朝太宗의 焚書같은) 는 있었으나 僞書를 造作한 일은 없었다。 몇해前에 天符經三神誌等이 처음 出現하였으나 누구의 辨駁이 없이 古書로 信認할 理가 없게된것이다。 그럼으로 我國書籍은 各氏의 族譜中 그 祖先의 事를 或 僞造한것이 있는 以外에는 그리 眞僞의 辨別에 애쓸것이 없거나와 다음 接壤된 隣國인 支那 日本에는 從古로 交際가 頻煩함을 말아서 우리 歷史에 參考된 書籍이 적지 않으나 그러나 僞書 많기로는 支

那같은 나라가 없을 것이다 僞書를 辨認치 못하면 引證치 못할 記錄을 我史  
 에 引證하는 錯誤가 생긴다 그러치마는 그 僞가 分量이 있나니 一은 僞中의  
 僞이니 例를 들면 竹書紀年에 眞本이 亡하고 僞作이 出하였음은 前者에 임이  
 陳述한바어니와 舊史家들이 늘 古記의 「檀君與堯並立於戊辰」의 文을 依하여 檀  
 君의 年代를 알고저 하는이는 항상 堯의 年代에 比較하고저 하며 堯의 年代를  
 찾는이는 續綱目(金仁山著)에 考準하나 그러나 周召共和以前の 年代는 支那  
 史家の 太祖라할만한 司馬遷도 알지 못하여 그 史記年表에 쓰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그보다 遼遠한 堯의 年代리요 故로 續綱目은 다만 僞竹書紀年에서 據  
 하여 적은 年代어늘 이제 續綱目を 據하여 古代의 年代를 차즈라함은 獨이이  
 年代를 홀임이며 孔安國의 尙書傳에 「句麗駟貊」의 句를 引하여 句麗의 三韓이  
 周武王과 交通하였음을 主張하는이도 있으나 史記 孔子世家에 「安國爲今皇帝博士  
 蚤卒」이라 하였는데 皇帝는 武帝이니 武帝를 「今皇帝」라함은 司馬遷의 武帝  
 가 죽어 證받으는것을 못본 까닭이요, 安國을 「蚤卒」이라함은 司馬遷의 生前에

安國이 죽음을 본 故로 적음일지라。그러면 安國은 司馬遷보다 먼저 죽고 司馬遷은 武帝보다 먼저 죽음이 明白하거늘 尙書傳中에 武帝의子인 昭帝時代에 創設한 金城郡名이 있으니 安國이 그 死後에 創設된 地名을 預言할만한 卜者라면 몰으거니와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尙書大傳의 僞書됨이 또한 的確하고 거기에 記錄한 馯緡句麗等の 僞證임은 自然 明白할것이다。 그는 眞中の 僞이니 이것을 또 二에 分하면 (甲)은 本書의 僞證이니 마치 初學集 有學集은 錢謙益이 著한 實有한 글이지마는 그 集中에 쓴 我國에 關한 일은 대개 錢謙益의 僞造요 實有한것 實인것이 많은 類가 이것이라 그러나 我史에 그 反駁할 確證들이 있거니와 만일 我史에 反駁할 材料는 泯滅하고 彼史의 誣案만 流傳된자 있으면 다만 假說의 否認으로는 當되리니 어찌하면 可할가? 昔者에 張維가 史記「武王封箕子于朝鮮」을 辨正할새 第一에 尙書에「我罔爲臣僕」을 들 어 箕子 이미 남의 臣僕이 되지 當이 當할줄로 自誓하였은즉 武王의 封爵을 받을 理가 없다는 前提를 세우며 第二에 漢書에「箕子避地于朝鮮」을 들어 班

固는 史記지은 司馬遷보다 忠實하며 精密한 歷史家로서 遷史에 쓴바 箕子封爵 說을 때였은즉 封爵은 事實않이라고 斷言을 나리었으니 이는 人證이요 三國以後 高麗末葉以前(蒙古入寇以前)에 우리 國勢가 強盛하야 支那에 對하야 干戈 相見한 때에도 彼國에 보낸 國書에 卑辭가 많았으나 그러나 第一에 他國 이 遣使하면 반듯이 來朝라 稱은 支那人 病理的自尊性이니 이는 近世 淸朝가 처음 西洋과 通할때에 英露諸國의 通商한 事實을 모다 「某國稱臣奉貢」이라 稱을 보아도 可知이니 그 記錄을 浪信할수 없는것이다。第二에 支那人이 만든 列朝詩集 兩朝平壤錄等 詩話 가운데 朝鮮사람의 詩를 가져다가 掲載할 때에는 늘 大膽하게 一句一聯을 塗改하였음을 보니 우리 歷史를 膽錄 할 때에도 字句를 改하였음을 알것이며 第三에 蒙古의 威力이 我國을 震懼할때에 우리의 樂府史冊을 갖다가 皇都 帝京 海東天子等 字句를 모다 고친 事實이 高麗史에 보이었으니 그 고친 記錄을 다 釐正치 못한 三國史 高麗史等도 支那와의 關係되는 文字는 實錄 謄印일것을 알것이니 이는 事證이요 年前 金澤榮의 歷史



輯略과 張志淵의 大韓疆域考에 神功女主十八년에 新羅征服과 垂仁主二年에 任那府設置等을 모다 日本書紀에서 採入하여 宏博을 자랑하였으나 그러자 神功十八年은 新羅奈解의 四年이요 奈解當年에는 新羅가 鴨綠江을 구경한이도 적을터인데 이제 奈解가 阿利那禮(鴨綠江)를 가라쳐 重誓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며 垂仁은 百濟와 交通하기 以前에 日本皇帝인즉 百濟의 縫紉도 輸入이 못된 때이니 垂仁二年에 任那國人에게 赤絹 二百匹을 주었다함은 웬 말이노? 後兩個의 疑問을 答하기 前に 그 兩件의 記事가 自然히 否定되리니 이는 理證이라. 이렇지 古人的 僞證을 들어낼것이다. 人으로 事로 道理로 證하여 符合치 않으면 僞錄임을 알것이다. (乙)은 後人의 僞證이니 本書에는 元來 僞證이 없는데 後人이 文句로 增加하여 僞證한것이니 마치 唐太宗이 高句麗를 치라하여 그 史記 漢書 後漢書 三國誌 晉書 南史 北史等에 보인 朝鮮에 關한 事實을 가져다가 自家에 有益하도록 꾸미일때 顔師古等을 식히여 曲筆을 잡아 塗改하여 添補하여 變易하고 臆註하여 四郡의 沿革이 假로서 眞이 되며 歷代 兩國의

國書가 더욱 本文대로 流傳된 것이 없게 되었다。 이러한 證據는 本論第二章 地理沿革에서 볼수 있을 것이다。(丙)은 僞中에 眞이니 마치「管子」같은것은 管仲의 作은 眞이나 支那 亡國時代의 著作으로 朝鮮과 齊의 戰爭은 돌이켜 그 實을 傳한者이니 僞書로도 眞書以上の 價値를 가진것이라 할것이다。

(五) 蒙滿土諸族의 言語와 風俗의 研究

金富軾은 金春秋 崔致遠以來의 慕華主義의 結晶이니 그 著한 三國史記에 高朱蒙은 高辛氏의 後裔라 金首露王은 金天氏의 後裔라 辰韓은 秦人의 東來者라 하야 말이나 피나 띠나 敎나 風俗이 한가지도 같은데가 없는 支那族을 同宗으로 보아 말살에 쇠살을 붙인 어림없는 붓을 늘린 뒤로 그 僻見을 喝破한 이가 없었으니 우리 夫餘의 族系가 分明치 못하야 드디어 朝鮮史의 位置를 어두운 구석에 묻지가 오래였다。 언제인가 筆者가 史記 匈奴傳을 보니 三姓의 貴族있음이 新羅같으며 左右賢王있음이 高麗나 百濟같으며 五月의 祭天이 馬韓과 같으며 戊己日을 尙함이 高麗같고 王公을 汗이라함이 三國의 干과 같으며

官名末字에 「치」(鞮) 라는 ·음이 있음이 臣智의 「智」와 卑支의 「支」와 같으며  
後를 關氏라 함이 窻「아씨」의 譯이 啻인가?의 假說이 일며 人畜會計의 處  
를 儂林 或 躑林이라함이 「살임」의 義가 啻인가의 疑問이 나고 休屠는 蘇塗  
와 音이 같을뿐 啻이라 國中에 大休屠를 둔 休屠國이 있고 各處에 또 小休  
屠가 있어 더욱 三韓의 蘇塗制와 틀림이 없는지라。이에 朝鮮과 匈奴가 三千  
年前에는 一室內의 兄弟이었다는 疑案을 가지고 그 解決을 求하였드니 그뒤에  
乾隆帝의 欽定한 滿蒙源流考와 遼元金三史國語解를 가져 比較하여 보니 비록  
그중에 夫餘의 大臣稱號인 「加」를 音으로 解하여 朝鮮말에 金「가」李「가」라  
는 「가」와 同義라 하지 啻고 義로 註하여 「家」의 誤라 하며 金史의 李極烈  
을 音으로 맞는 新羅의 弗矩內에 相當한것이라 啻고 清朝의 貝勒(파리)의  
同類라.....한것等에 失이 없지 啻으나 朱蒙의 滿洲語「주림물」 곧 善射의 義  
라 하며 沃沮가 滿洲語「와지」 곧 森林의 義라하며 三韓官名末字에 「支」가 곧  
蒙古語馬官을 「말치」羊官을 「활치」라는 「치」의 類라 하며 三韓의 韓은 可汗의

「汗」과 같이 王의 稱이요 國의 號가 없이 라한……多數한 考據거리를 얻고 또 그 뒤에 東蒙古僧을 맛나 東蒙古말의 東西南北을 물으매 연나 尊나 우진 나 회차라하야 高麗史의 「東部曰順那西部曰涓那南部曰灌那北部曰絕那」와 같음을 알았으며 또 그뒤 日人鳥居龍藏의 調査發表한바 朝鮮滿洲蒙古土耳其四族의 現行 하는 같은 말이 數十種이 있음을 보고 (貴子를 아기라 乾醬을 데주라는데) 第一步에 朝滿蒙土四語는 同語系라는 臆斷을 나리며 다시 支那二十四史의 鮮卑 匈奴 蒙古等に 關한 記錄을 가져 그 宗教와 風俗의 同異를 參照하며 西洋史 로서 匈奴의 遺種이 土耳其 匈牙利等地로 移住한 事實을 考閱하야 第二步에 朝鮮 滿洲 蒙古 土耳其의 四族은 同血族이라는 斷案을 나리게 된 것이다. 이 斷案의 正否는 姑捨하고 朝鮮史를 研究하자면 朝鮮의 古語뿐 없이 라 滿蒙等語 를 研究하야 古代의 地名官名의 意義를 깨달는 同時에 移住交通의 跡이며 攻 戰侵略의 墟이며 風俗同異의 差며 文野高下의 因이며 其他 許多한 事蹟의 探究 와 誤錄의 校正에도 利益함이라 하겠다.

以上の 五者は 材料의 搜集과 選擇의 勞苦를 말한것이다 嗟夫라 朝鮮 支那  
 日本等 東洋文獻에 對한 大圖書館이 없으면 朝鮮史를 研究하기 어려울것같다。  
 日本의 學者들은 아직 十分滿足하다할 圖書館은 없다하나 朝鮮의 所有가 그外  
 府의 藏이었으며 名種史料의 搜集이 便利하였으리니 게다가 相當한 新史學에  
 素養까지 있다고 자랑하나 至今까지 東洋學에 偉傑이 나지 못함은 무슨 연고  
 이냐 가장 彼中에서 聲譽噴噴한者가 白鳥庫吉이라 하지마는 그 著한바 新羅史  
 를 보면 排列整理의 新式도 볼수 없고 一二의 發明도 볼수 없음은 무슨 까  
 닭이냐? 島國의 狹隘한 天性이 朝鮮을 誣하기에만 急하여 公平을 缺함으로  
 因함이 淺인가? 朝鮮사람으로서 어찌 朝鮮史學이 日本人으로 부러開端하기를  
 바라리오 또한가지 朝鮮의 寶藏을 남음 없이 가져다가 暗昧中에 씩임은 歎惜  
 하지 않을수 없다。

第五章 史의 改造에 對한 意見

歷史材料에 對하여 그 亡을 補하며 缺을 充하며 僞를 去하며 誣를 辨하여 完備를 求하는 方法의 大略을 이미 말하였거니와 編纂하며 整理하는 節次에 至하여도 舊史의 套를 고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近來에 往往 新史의 體로 史를 만들었다는 新著가 없지 않으나 다만 新羅史라 高麗史라 하던 王朝斷의 式을 고쳐서 上世中世近代로 하여 卷之一이라 卷之二라 하던 通鑑分編의 名을 고쳐서 第一編 第二編이라 하면 그 內容을 보면 才技와 異端이라 하던 것을 藝術이라 學術이라 하여 그 貴賤의 位置가 바뀌인뿐이요 勤王이라 捍外라 하던 것을 愛國이라 民族的自覺이라 하여 그 新舊의 名詞가 달을 뿐이니 털어 놓고 말하자면 韓裝冊을 洋裝冊으로 고침에 不過한 것이다。 이제 改造할 方法의 大綱을 말한다면

(一) 그 系統을 求할 것이니 舊史에는 甲大王이 乙大王의 父요 丁大王이 丙大王의 弟이니 하여 王室의 系統을 求하는 外에 달은 곳에서 거의 系統을 求하지 안았음으로 무슨 事件이든지 中天에서 巨人이 나려오고 平地에서 神山이

솟아오른듯하여 一編의 神怪錄을 읽는것 같도다 歷史는 因果關係로 講求하자는  
 것인데 만일 이와같은 因果以外的 일이 있다하면 歷史는 하여 무엇하랴마는  
 그러나 이는 지은 사람의 不注意요 本實이 그런것은 아니다。故로 舊史에는  
 그系統을 말하지 않았다가하여도 우리가 이를 차츰 잇으니 三國史記新羅史에  
 적힌 新羅의 國仙이 眞興大王때부터 文武大王때까지 全盛하야 斯多舍 같은이는  
 겨우 十五六歲의 少年으로 그 弟子의 數가 支那大聖孔丘와 견우게 되었으며  
 이박게 賢相 良將 忠臣 勇士가 모다 이 가운데서 났다。(三國史記에 引用한 金  
 大問의 說) 하였으나 그동안의 數十年에 不過하야 聲息이 아조 그치 國仙以前  
 에 國仙의 祖도 불수 없으며 國仙以後의 孫도 불수 없이 突然히 왔다가 突  
 然히 간 國仙이니 이것이 이 新羅의 神怪錄이 안이나? 그러나 古記에서 王  
 儉이 國仙의 始됨을 찾으며 高句麗史에서 皂衣先人 등을 알것이며 國仙의 一됨을  
 찾으며 이에 國仙의 來源을 알며 高麗史에서 李知白의 「仙郎을 中興식하자」 든  
 爭論과 睿宗의 「四仙遺跡을 加榮하라」 毅宗의 「國仙伏路를 重開하라」 는 詔書를

보매 高句麗까지도 오히려 國仙의 遺統있음을 불지니 이로써 系統을 求하는 方法의 一例로 드노라.

(二) 그 會通을 求할지니 會通은 前後彼此의 關係를 類聚한다는 말이다。舊史에도 會通이라는 名稱이 있으나 오직 禮志 科目志等—이것도 會通의 方法이 完美하지 못하지만—이외에는 이 名稱은 應用한 곳이 없다。그럼으로 무슨 事件이든지 忽然히 모였다가 흩어지는 彩雲도 같고 突然히 불다가 그치는 旋風도 같아서 到底히 撰述할수가 없다。高麗史 妙清傳을 보면 妙清이 一個西京의 僧侶로서「平壤에 遷都」하며「金國을 치자」하매 一時에 君王以下 多數 臣民의 同志를 얻어 氣勢가 赫赫하다가 마침내 平壤에 據하여 國號를 大爲라하며 元年을 天開라하고 仁宗다려 大爲國皇帝의 位를 踐하라고 脅迫狀式인 上疏를 올리더니 反對黨의 首領인 一個儒生 金富軾이 王師로서 와서 問罪하며 妙清이 變변이 一戰도 못하고 部下에게 죽었음으로 妙清을 癡狂者라고한 史評도 있거마는 當時의 妙清을 이와같이 信仰한이가 많았음은 무슨 까닭이며 妙清이 이와같이



卒敗됨은 무슨 까닭이냐? 高麗史의 世紀와 列傳을 參考하여 보면 太祖王建이  
 契丹—遼—와 絶交하고 北方의 故疆을 恢復하려다가 舉事치 못하고 崩逝함으로  
 그 後繼되는 帝王에 光宗 肅宗같은이는 다 그 遺志를 成就하라 하였으며 臣  
 下에도 李知白 郭元 王可道 같은 이들이 있어 熱烈하게 北伐을 主張하였으나  
 다 實現치 못하고 睿宗과 尹瓘이 君臣이 同心하여 豆滿江以北을 經營하라는  
 鋒銳을 少試하다가 反對者가 너무 많아 그 既得 土地인 九城까지 金太祖에게  
 다시 讓還하니 이는 當時 武士들이 千古에 恨事로 여기는 바이며 그뒤에 金  
 太祖가 遼를 滅하고 支那 北方을 차지하여 皇帝라 稱하며 天下에 虎視하니  
 金은 元來 白頭山東北의 女眞部落으로 我에 服役하든 奴民(高麗圖經에 女眞奴  
 事高麗라하고 高麗史에 載한 金景祖의 國書에도 女眞以高麗爲父母之邦이라함)으  
 로 一朝에 强盛하여 兄弟의 位置가 바뀌며(高麗史에 載한 金太祖의 國書에  
 兄大金皇帝致書于弟高麗國王이라함) 이에 國人中 조금 血氣가 있는 者이면 國恥  
 에 灑淚할 일이라. 妙淸이 이점을 라서 高麗初葉부터 傳來하는 「定都平壤三十六

國來朝」의 圖讖을 가져 부르짖으며 事大主義의 僻見을 가진 金富軾等 若干人 以外에는 모두가 妙淸을 響應하여 大文豪인 鄭知常이나 武將인 崔逢深이나 文武 兼소한 尹彥頤(尹瓘子)가 一致로 北伐論을 主唱함으로 妙淸의 勢力이 一時에 全盛하였으며 未久에 妙淸의 舉措가 狂妄하여 平壤에서 王命도 없이 國號를 改치며 舉朝를 脅迫하며 이에 鄭知常은 王의 左右에 있어 妙淸의 行動을 反對하며 尹彥頤는 동이여 主義가 달은 金富軾과 同事하여 妙淸討伐의 先鋒이 되나 이는 妙淸의 失敗한 原因이라 그러나 金富軾이 出征하기 前에 鄭知常은 죽이고 妙淸을 討平한 後에 또 尹彥頤를 竄逐하여 北伐論者의 根柢를 掃蕩하여 버리었다. 金富軾은 成功하였으나 朝鮮衰弱의 리는 이로부터 잡았다고 할리

라.  
個人으로부터 社會를 만드느냐 社會로부터 個人을 만드느냐? 이는 古代부터 歷史學者의 爭論하는 問題다. 李朝前半期の 思想界는 世宗大王의 思想으로 支配 되며 後半期の 思想界는 退溪山人의 思想으로 支配되었었다. 그러면 李朝五百年間

의 社會는 世宗 退溪 兩人的 만든바가 양인가? 新羅下代부터 高麗中葉까지의 六百年동안은 永郎 元曉가 각기 思想界의 一方面을 차지하여 永郎의 思想이 盛하는 때에는 元曉의 思想이 물러가고 元曉의 思想이 盛하는 때에는 永郎의 思想이 물러가 一進一退 一往一來로 갈어들어 思想界의 霸王이 되었으니 六百年동안의 社會는 그 兩家の 만든바가 양인가? 百濟의 治制를 溫祚大王이 마련하여 古爾大王이 마추며 渤海의 治制를 高帝가 마련하여 宣帝가 마추었으니 만일 溫祚와 古爾王이 양이면 百濟의 政治가 무삼 形式으로 되었을는지? 高帝와 宣帝가 양이면 渤海의 政治가 무슨 形式으로 되었을는지 또한 물을 것이다。

三京五都의 制度가 王儉과 夫婁로부터 數千年동안 政治의 模型이 되었으니 王儉과 夫婁가 양이던면 朝鮮의 國家社會가 어떠한지 되었을는지 물을 것이니 이로써 보면 一個 偉大한 人格者의 손끝에서 社會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요 社會의 自性은 없는 것이 양인가? 그러나 다시 一方面으로 보자 高麗末葉 佛

敎의 腐敗가 極度에 達하여 元曉宗은 이미 衰微하고 臨濟宗에도 또한 傑物이  
 없고 다만 十萬人的 飯僧會와 百萬人的 八關會가 財穀이 糜費하여 國民이 머  
 리를 얕을뿐이라 社會는 떨어져서 佛敎밖에서 新生命을 찾기에 汲汲함으로 安裕나  
 禹阜이나 鄕夢周들이 儒敎의 木鐸을 들은지가 오래였다. 그 밑에서 世宗이나 고  
 退溪가 남이니 그러면 世宗의 世宗이 됨이며 退溪의 退溪됨은 世宗이나 退溪  
 自身이 얕이요 社會가 만들어라는 것이 올치 안을가? 三國末葉 그 累百年間에  
 燦爛히 發達한 文學과 美術의 影響을 바다 蘇塗天君의 迷信이나 律宗小乘의  
 下品佛敎로는 靈界의 慰安을 줄수가 없어 社會가 그 新生命을 차근지가 또한  
 오래인 故로 新羅의 眞興大王이나 高句麗의 淵蓋蘇文이 彼此 다 諸敎統一의  
 新立案을 내라한 일이있었다. 그럴때에 永郎이 徒領의 노래를 부르며 元曉가  
 華嚴의 자리를 메프며 崔致遠이 乍儒乍佛乍仙의 神通한 재조를 보이매 이에  
 各界가 喝采하여 이 세사람을 마름이니 永郎이나 元曉나 崔致遠이 모다 本人  
 自身으로 됨이 얕이요 社會가 만들어 安穩가? 이에 떨어져서 一個疑問이 生起

한다 元曉는 新羅 그때에 났기에 元曉가 됨이요 退溪는 李朝 그때에 났기에 退溪가 됨이니 만일 그들이 希臘哲學의 講壇에 났다면 「플라토」나 「에리스토를」이 되지 않았을까? 法國이나 德國의 現代에 났다면 「테루손」이나 「오이켄」이 되지 않았을까? 拿破崙의 雄才大略으로도 道袍 입고 大學 읽던 百年前 陶山書院 附近에서 났다면 宋時烈이 되거나 나아가 洪景來가 되었을뿐 않았을까? 大小의 分量이 그와 같이 되지는 않는다 하여도 그 面目이 아조 달렸을 것은 斷言할수 있다。 論調가 이곳에까지 미쳤으나 個人은 社會불무에서 지어질뿐이니 個人의 自性은 어대 있느냐? 個人도 自性이 없고 社會도 自性이 없으면 歷史의 原動力은 어데에 있느냐? 個人이나 社會는 環境과 時代를 달아 自性이 成立한다。 朝鮮이나 滿洲나 蒙古土耳其匈牙利나 芬蘭이 三千年以前에는 的確한 一族이 었다 그러나 或은 亞細亞에 仍居하여 或은 歐羅바로 移住하여 洲의 東西가 달으며 或은 半島로 或은 大陸으로 或은 沙漠 或은 肥土 或은 溫帶寒帶로 分佈하여 地의 遠近在 달으며 牧畜農業侵略保守等

生活과 習俗이 해와 달을 지내어 더욱懸隔이 생기어 各自의 自性을 가졌나  
니 이것이 卽 環境을 달아 成立한 民族性이라 할것이다。같은 朝鮮으로도 李  
朝時代가 高麗時代와 달르고 高麗時代는 또 東北國과 달르고 東北時代는 三國  
과 갖지 않으며 王儉 夫妻時代와 같지 않아야야 멀면 千年의 前後가 달으며  
갓가우면 百年前後가 달으니 從今以後로는 文明進步가 더욱 速度로 되어 十年  
以前이 鴻荒이 되고 一年以前이 遠古가 될는지 모르는 것이다。이것이 일은바  
時代를 달아 成立한 社會性이라。元曉와 退溪가 時代와 境遇를 바뀌어 났다하  
면 元曉는 儒者가 되고 退溪는 佛者가 되었을는지 몰으거니와 跳揚發達한 元  
曉다려 朱子規矩만 謹守하는 退溪가 되라하면 이는 不可能한 일이며 忠實한  
退溪다려 佛家의 別宗을 樹立하는 元曉가 되라하면 이도 不可能한 일일것이니  
何故이나? 하면 時代와 境遇가 人物을 產出하는 原料됨 같으나 人物이 時代와  
環境을 利用하는 能力이 달은 緣故이니 民族도 個人과 같이 某地某時에 甲이  
라는 民族이 가서 成績이 如何하였으니 乙民族이 갔드라도 꼭 이만한 成績을

가결으리라 하면 너무急速한 判斷이라하겠다.

대개 個人이나 社會民族이나 兩個性이 있으니 一은 恒性이요 二는 變性이다 恒性은 第一自性이요 變性은 第二自性이니 恒性이 많고 變性이 적으면 環境에 適應치 못하여 滅絶할 것이며 變性이 많으며 優者の 征服을 받고 劣敗할 것이니 늘 歷史에 回顧하여 兩個自性의 多寡를 調劑하며 輕重을 平均히 하여 그 生命이 天地와 같이 長久하게 될것은 오히려 民族的反省에 賴할 것이다.

以上에 依하여 個人과 社會의 關係에對하여 兩個結論을 지었으니 (一) 社會의 既定한 局面에서는 個人이 힘쓰기 매우 困難하고 (二) 社會의 未定한 局面에서 는 個人이 힘쓰기 아조 쉽다. 鄭汝立이 「忠臣은 不事二君하며 烈女는 不更二夫한다」의 儒家倫理觀을 一筆로 抹殺하여 「人民에 害되는 君은 弑함도 可하고 行義不足한 夫는 去함도 可하다」하며 「天意 人心이 이미 周室에서 去하 였는데 尊周가 무엇이더 人衆과 土地가 별서 曹操와 司馬懿에게 돌아갔는데 區區一隅 劉玄德의 正統이 다 무엇이냐」하는 孔丘朱熹의 歷史筆法을 反對하니

그 弟子 卒克成等은 「이는 참 前聖의 未然할 말씀이라」하고 宰相과 學者들도 그 才氣와 學識에 顛倒하는 이가 많았으나 世宗大王의 三綱五倫의 扶植이 별 서 러를 잡고 退溪先生의 尊君慕聖의 主義가 이의 籍을 지어 全社會가 安頓된 지 오래이니 이같은 突飛的革命的學者를 容納하리요。그럼으로 曖昧한 一紙의 告變狀에 身首가 異處하고 全家가 丘墟되어 平生 著述이 모다 火葬에 들어감 이니 이는 곧 (一)에 屬한것이라。崔致遠이 「支那留學生으로 發程할때 그父가 「十年이 되어도 科名을 얻지 못하면 나의 아들이 없이라」하야 一個의 漢文 卒業生됨을 바랐을뿐이다。崔致遠이 돌아와서 「巫峽重峰之歲絲 入中原銀河列宿之年 錦遠東國」을 노래하야 致遠自身도 또한 一個漢文卒業生됨을 남에게 자랑하였 다。그思想은 漢이나 唐에만 있는줄 알고 新羅에 있는 줄은 몰으며 學識은 儒書나 佛典을 貫通하였으나 本國의 古記 一篇도 보지 못하였으니 그 主義는 朝鮮을 가져다가 純支那化하려는것뿐이요 그 藝術은 青天으로 白日을 對하며 黃花로 綠竹을 對하는 四六文에 能할뿐이었다。當時 永郎과 元曉의 兩派가 나



老朽하야 社會의 中心되는 힘을 잃고 新人物에 對한 需要가 마치 飢者의 밥  
을 求할 갈으니 第一步에 大先生徽號가 一個漢文卒業生에게로 돌아가며 第二步  
에 千秋血食의 禮까지 그에게 받치어 高麗에 들어와서는 永郎과 元曉의 兩派  
家로 對席하게 되이니 「때를 만나면 堅子도 成功한다」 함은 이를 두고 말함  
이니 이는 (二)에 屬한 것이다. 어찌 學界뿐이라? 모든 事業이 그리하니 箕  
管과 梁吉도 一時에 雄張함은 羅末의 未定한 局面에서 일어남이요 李澄玉이나  
洪景來가 居然히 敗亡함이 李朝의 既定한 局面으로서이다. 林白湖-梯-가 말하  
기를 「나도 中國의 六朝나 五季時代를 맞았더면 돌림天子는 일어하였겠다」고 하  
였다. 林白湖같은 詩人에게 六朝五季의 劉裕나 朱金忠같은 紅鬚賊魁師와 同等이  
되어 돌림天子나마 돌아오게할 威力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支那의  
天子를 經營하랴면 漢唐의 治世보다 六朝五季의 亂世가 쉬울것은 自然한 理일  
것이다.

既定한 社會의 人物은 늘 前人の 筆法을 배워 이것을 敷衍하야 이를 擴張

할뿐이니 人物되기는 쉬우나 그功이나 罪—크지 못하며 革命性을 가진人物(鄭汝  
立等)은 대양 失敗로 마칠뿐 양이라 社會에서도 그를 恨嫉하야 言論이나 行  
事의 蹤跡까지 消滅식히는 故로 後世에 끼치는 影響이 거의 零度가 되고 오  
직 三百年이나 五百年뒤에 一二知音이 있어 그 遺音을 賞할뿐이요 未定한 社  
會의 人物은 반듯이 創造的革命的男兒라야 될듯하나 엇던때는 꼭 그렇지도 않아  
서 小刀細工의 下品才子로서 外國人の 口吻을 模倣하야 言笑歌哭의 逼真이 人  
을 動할만하면 居然히 人物의 地位를 所得하기도하나 人格的自性的 表顯은 없  
고 奴隸的習性만 發揮되어 全民族의 恒性을 埋沒하고 變性만 助長하는 惡機械  
가 되고 마나니 이는 社會를 爲하야 恐懼하는 바이며 人物되기에 뜻하는 者  
의 戒愼할 바라하노라. 끝

